

비대위 제휴카드 관련 협상 마무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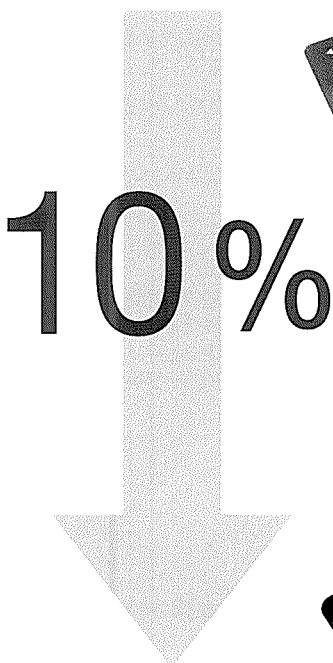
# 제휴카드 '할인율 10%' 출발

쉽게 풀리지 않을 듯 보이던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한 투쟁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비대위는 SK텔레콤, 파리바게뜨와 협상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40% 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오는 3월부터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자영제과점에 똑같이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글\_정슬이 기자 · 사진\_정슬이 기자, 주현진(이미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7개월 동안의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및 생존권보호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이래 SK텔레콤, 파리바게뜨와의 릴레이 협상을 거듭한 끝에 제휴카드 할인율을 종전 20~4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SK텔레콤이 "자영제과점도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을 위한 제휴카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제 자영제과점들도 프랜차이즈 제과점들과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 협상 시작부터 할인율 10%로 일단락되기까지

지난 2003년과 2004년 제휴카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SK텔레콤에 자영제과점의 할인카드를 제휴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무분별한 카드 할인을 자제할 뜻을 전달했으나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했다.



지난해 비대위가 공식출범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 양사가 제휴카드에 대한 기존의 강력한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을 제안해 온 것이다. SK텔레콤은 "고객의 동의 없이 할인카드를 갑작스레 폐지하는 것은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제과업계와의 업무 제휴에 있어서 (사)대한제과협회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리바게뜨도 "할인카드를 폐지하는 것은 본사에서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할인율을 낮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뜻을 전하면서 "비대위 및 제과업계에서 정한 할인율에 따르겠다"고 한 발 크게 물러섰다.

비대위는 양측과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할인카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영제과점이 최대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할인율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12월 들어 지속적인 협의를 벌인 끝에 오는 3월 1일부터 VIP 혜택은 폐지하고 할인율을 10%로 하향 조정기로 잠정 결정하게 된 것. 그동안 최고 40%까지 할인혜택을 줬던 제휴카드 할인 혜택은 2월 말까지만 지속되며 오는 3월부터는 10%의 할인혜택만 남는 셈이다.

또 비대위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SK텔레콤은 "자영제과점도 파리바게뜨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에게 할인카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시스템 설치 등 모든 운영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답을 전해왔다. 이제 자영제과점도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동일한 10% 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제과업계의 모든 업체가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휴카드 할인을 위해서는 전산망 구축, 결제시스템 운영,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 모든 운영비용을 SK텔레콤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결정해 자영제과점도 큰 부담 없이 제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제휴카드 할인에 관련된 업무대행사에서는 자영제과점과의 제휴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크라운베이커리, 푸레쥬르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KTF, LG텔레콤 또한 10%로 할인율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으나 자영제과점의 할인카드 제휴 부분은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큰 탓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 비대위 활동 종결과 남은 과제

지난해 6월에 결성돼 7개월여 동안 투쟁을 전개해 할인을 대폭 인하와 자영제과점의 제휴카드 참여라는 큰 소득을 올린 비대위는 그동안의 활동을 총망라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2월 말 공식적인 활동을 마친다. 비대위는 "앞으로 모든 제휴카드 관련한 사항은 (사)대한제과협회를 비롯한 제과업체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공문은 SK측으로부터 이미 받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할인율을 낮췄다가 다시 슬그머니 올릴지 모른다는 회원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이번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협회 차원의 합의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다.

비대위는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십시일반으로 모인 투쟁기금 중 남은 금액과 미납된 투쟁기금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이다. 자영제과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된 투쟁기금이므로 제과 경영연구소 설립 등 자영제과점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투쟁기금을 비롯한 자금이 관련된 사항은 오는 2월 말까지 최종 마무리 된다.

지난해 7월 공동위원장 선출로 첫 발을 내딛은 비대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회원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대위의 투쟁에 열된 관심을 보여줬다. 할인율 인하로 잠정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휴카드 폐지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많은 회원들은 "자영제과점에서 똑같이 10%를 할인하는 것은 업계 전체가 제 살을 깎아 먹는 일이 아니냐"는 항의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10%면 이제 해볼만 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대위는 공식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1만 자영제과점의 이름을 걸고 제휴카드 폐지와 자영제과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결성됐다. 제휴카드 문제는 폐지대신 할인율 하향 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제과인 생존권보호'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제과인의 생존권보호는 단순히 제휴카드가 폐지되거나 할인율이 낮춰진다 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휴카드 폐지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터라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할인율 10%'를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10%'는 아쉽지만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개발

하고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해볼만 한 싸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제휴카드 탓에 등을 돌렸던 고객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할 때다. ☞

##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관련 활동일지

### 2003

\*자영제과점의 카드제휴 추진 불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휴카드 할인 자제 요청 무응답  
10/29 긴급 전국지회장회의 개최 및 연명부 작성 시작

### 2004

05/04 SK텔레콤 관계자 미팅-제휴카드 제과점 사용 금지 요청  
\*이후 SK텔레콤 및 SK(주) 대표 미팅을 요청했으나 결렬

### 2005

06/01 가칭 투쟁위원회 발기인 대회  
06/16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 보호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결성  
공동위원장 8명 선출  
07/26 비대위 전국대의원대회 소집  
09/09 비대위 사무국 개설  
09/29 소식지 발간-전국 자영제과점 및 정부단체, 국회, 언론사 등 홍보  
10/13 Siba 2005 행사장 내 제휴카드 폐지 서명 운동  
10/19 이동통신사 및 프랜차이즈 업체에 제휴카드 철폐 요구 1차 공문 발송  
10/21 2차 공문 발송  
10/27 SK텔레콤과 파리바게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 제소  
11/24 SK텔레콤 관계자 면담-(사)대한제과협회 중심의 제휴사업 약속  
11/28 전국 지회·지부장 회의 개최  
12/02 프랜차이즈 3사와 할인율 조정 회의 개최  
12/13 1차 의견 조율 회의  
12/19 2차 의견 조율 회의  
12/26 공동위원장 회의 -할인율 확정 및 시행시기 최종 논의

### 2006

\*이동통신사,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할인율 10%', '3월 1일 시행', 'VIP 폐지' 확인  
1/12 이동통신사 3사 및 프랜차이즈와 3월 1일부터 10% 할인율 시행 최종 결정  
1/17 투쟁위원장 회의

